

‘박 대통령 운명’ 정해졌나...헌재 이미 결론 낼수도

이틀 남기고 선고일 확정...의견 일치 이뤄진 듯

인용·기각·각하 결정문 완성...선고 직전 평결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날’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8일 재판관회의에서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평의는 두 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날 1시간만에 평의가 끝난 것에 비하면 1시간 30분 동안 더 지속됐다.

헌재가 이날 2시간 30분 가량의 논의 끝에 날짜를 확정하면서 재판관들 사이에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일을 확정하고, 최종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9일에도 평의는 가능하지만, 아직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은 시간 동안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헌재 배보은 공보관은 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관 8명만 평의 내용을 알 수 있고, 선고일까지는 결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쟁점 사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더라도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선고시간이 10일 오전 11시 인점이 주목을 끈다.

헌재는 대개 오전 10시에 선고를 해왔는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1시로 잡혔다. 이는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선고의 경우에는 10시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미 탄핵심판의 결정문은 인용과 기각, 각하의 3가지가 완성됐

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9일 평의를 거쳐 10일 선고 직전 평결을 함으로써 하나의 결정문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헌재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긴장감이 돌고 있다.

헌재가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헌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종결되게 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끝마친 이후 11일 만에 잡히는 선고 기일이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엔 최종 변론부터 선고 기일까지 14일이 걸렸다.

이런 점에서 범조계는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힌 이후 3월 9일, 10일, 13일 등 최종변론 이후 10일~14일 가량 지난 날짜를 선고일로 점쳐왔다.

일반 사건의 경우 목요일을 선고 기일로 잡는 게 관례인 점에선 목요일인 9일이, 13일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점에선 10일이 유력하게 예상됐다.

헌재 내부에선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째인 13일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에 이 권

한대행이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일을 3일 앞둔 10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 지었다. 최대 3일을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조기 선고’ 카드를 택한 셈이다.

한편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데 대해 “헌재가 수리를 따랐다”고 평가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8일 “3월 10일은 애초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 했던 2월 24일부터 (재판관 평의에 필요한) 2주가 지난날”이라며 “스케줄로 보면 10일이 애초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한철 전임 소장인 이미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공언했기 때문에 10일이나 13일이라는 문제였다고 본다”며 “재판부가 역사적 결정문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단 다른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일 지정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됐다”고 보면 맞다”고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지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심판 준비 절차	
2016년 12월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월 중 박 대통령 답변서 제출. 특검 및 검찰, 헌재에 수사자료 제출. 양측 증인신청서 접수 등	
헌재소장 퇴임	2017년 1월 변론기일 심리 진행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1월3일 1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1월5일 2차 변론기일, 1월10일 3차 변론기일, 1월12일 4차 변론기일, 1월16일 5차 변론기일, 1월17일 6차 변론기일, 1월19일 7차 변론기일, 1월23일 8차 변론기일, 1월25일 9차 변론기일	
소장 대행 선출	2월 변론기일 심리 진행	
2월1일 이정미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2월1일 10차 변론기일, 2월7일 11차 변론기일, 2월9일 12차 변론기일, 2월14일 13차 변론기일, 2월16일 14차 변론기일, 2월20일 15차 변론기일, 2월22일 16차 변론기일, 증인 신문 절차 종료	
최종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결정	
2월27일 국회측 및 박 대통령측 최후 변론	2월26일 박 대통령 최종 변론 불출석 결정	
평의	선고일 통보	결정문 작성
2월28일 비공개 평의 돌입, 선고 전 2주간 평의 및 평결	3월9일 탄핵심판 선고일 최종 지정 및 공포	평의 및 평결을 통해 주문과 결정문 확정
탄핵심판 사건 선고		
3월10일 오전11시 탄핵 인용시 선고 시점부터 효력 발생, 대통령 자격 박탈 탄핵 기각·각하시 대통령 직무정지 종료, 즉시 대통령직 복귀		

프랑스·스웨덴 대사 광주 방문 까닭은?



亞문화전당-佛 문화교류사업 탄력 문화전당장과 전시 협력 방안 등 논의...윤 시장 예방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프랑스와 문화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파비앙 페논(Fabien Fenone·사진 오른쪽 두 번째) 주한 프랑스 대사가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 방선규(·세번째) 문화전당장 직무대리와 문화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방 전당장과 파비앙 페논 대사는 문화전당과 유럽 지중해문명 박물관간 전시협력에 관한 MOU 체결, ‘ASEM 창조산업 청년 리더십 네트워크’사업,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에 프랑스 연주단 참가 등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문화전당에서 프랑스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면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

해졌다.

파비앙 페논 대사는 운장현 광주시장을 접견한 뒤 프랑스와 광주시간 경제·언어·교육,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도 만나 학위인정 협약, 양국 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 등을 상의했다.

파비앙 페논 프랑스 대사는 이날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프랑스 우주과학기술 특별전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특별전은 프랑스 항공우주과학관과 툴루즈과학관, 프랑스대사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스웨덴 일·가정 양립 정책 강연

광주 서구청, 13일 사진전도

안네 회그룬드(Anne Hoglund·사진) 주한 스웨덴 대사가 13일 광주 서구청을 찾았다.

광주 서구에서 열리는 ‘스웨덴의 아빠’라는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스웨덴의 정책,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서다.

정부 정책에 맞춰 직장 내에서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는 방침을 세운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양성 평등 및 가족 친화적 정책 모델로 평가받는 스웨덴 사례를 공유하려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물이 13일 오후 3시 서구청 1층 로비에서 개막하는 ‘스웨덴의 아빠’라는 사진전이다. 24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사진전에는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사진 25점이 선보인다.

회그룬드 대사는 이날 오후 3시50분부터 구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시민들과 만나 스웨덴의 양성 평등 및 가족 친화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는 강연도 진행한다.

서구에 따르면 스웨덴은 지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휴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부부합산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390일 동안의 휴직 급여의 80%는 정부가 지원할 정도로 국가가 양성가족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中 사드 보복” 손실 17조2천억 예상

IBK경제연구위원 분석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악에는 150억달러(약 17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6·8면〉

장우에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8일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중·일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 경제의 피해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추정했다.

중·일간에는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부를 체포하면서 1차 분쟁이, 2012년 9월

11일 일본 정부가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2차 분쟁이 벌어졌다.

특히 2차 분쟁 당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하고 일본산 불매운동도 확산됐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45.9%로 일본(17.9%)보다 높은 비중이 26.0%로 일본(17.5%)보다 높고 대중국 수출 둔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일본에 견주어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돼 상품수출이 5%, 관광객이 2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가 10% 감소할 경우(시나리오 1)와 상품수출이 10%, 관광객 3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는 20% 감소할 경우(시나리오 2)를 가정했다. /연합뉴스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981㎡ 매15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보2억,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월9백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임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보1억6천/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지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완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수업기간 : 2017년 3월 2일(수) ~ 2017년 6월 10일(토)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아간: 18:00~21:00
수강료 : 20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it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